

특집 변화와 혁신 선도하는 제주개발공사 (8)신제품 혁신-제주맥주

100% 제주보리 맥주 ‘제스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청정제주자연 그대로... 年 10억 매출 기대
내년부터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도 판매

제주지방개발공사가 맥주사업을 통해 제주산 보리 등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육성사업으로 국비 21억원을 지원받아 시험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지난달부터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맥주 제스피(Jespi)영업장에서 본격적인 맥주판매에 들어갔다.

제주맥주는 전분을 사용하지 않고 제주산 보리로 만들어진 100% 맥아만을 사용하고 전통 수제방식으로 제조한 후 생맥주 형태로 유통시키고 있어 청정한 자연의 맛이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espi’는 자연을 담은 제주의 순수한 마음을 뜻한다.

제스피 매장에서 판매되는 맥주는 생맥주 4종(필스너, 페일에일, 스트롱에일, 스타우트)과 병



제주맥주 ‘제스피’.

맥주 1종(필스너)이다. 라거타입의 필스너는 하면발효 방식으로 호프의 풍부한 향과 짭짤한 쓴맛이 일품인 황금빛 라거타입 맥주다. 에일 타입의 페일에일은 상면 발효 방식으로 감귤향과 맛이 강하면서 끝맛이 깔끔한 에일맥주, 스트롱에일은 상면 발효 방식으로 알코올 함량이 높고 바디감이 풍부한 에일맥주, 스타우트는 상면 발효 방식으로 초콜릿과 카라멜맛이 어우러지면서 부드러운 거품이 풍부한 에일맥주다.

이달 현재 제스피 영업장의 1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맥주 제스피 영업장은 1일 매출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연 매출 10억원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제주개발공사 제공

일 매출액은 30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소규모 제주맥주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한 3년차에 매출액 29억여원, 순이익 2억여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맥주)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판매법위를 영업장으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 영업장 외부로도 유통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제주맥주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제주맥주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편안은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도 낮췄다. 맥주시장 진입규제로는 대표적으로 ▷과도한 시설기준 ▷일률적 주세 부과 ▷하우스맥주 외부유통 금지 등이 꼽혀왔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이미 구축된 설비를 이용해 앞으로 판매 주이 등을 감안해 500kL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는 등 생산체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글>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28일 세계농업유산 전문가들이 제주시 구좌읍 발담 현지실사를 실시한 뒤 해녀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강경민기자

“제주발담 새로운 농업유산 유형”

세계 전문가들 어제 현장 방문... 호평 일색
제주인 삶·농경문화 연계 스토리텔링 주문

제주의 상징이자 농업유산인 ‘제주발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기존 농업유산 위주의 세계농업유산과 차별화된 ‘새로운 스타일’의 농업유산이라며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28일 농업유산보존 관리 및 연합력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일본 유엔대학의 타케우치 가즈히코 상급부학장,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 원원구소 민청원 박사를 비롯 일 본 가나자와 대학의 나카무라 교수, 유엔대학의 리양 교수 등 세

세계농업유산 전문가들의 ‘제주발담’ 현지 실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세계농업유산 등재 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등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이번 현지실사는 연내 ‘제주발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 심의에 앞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발담에 대한 등재 가능성 견해를 들어보고 보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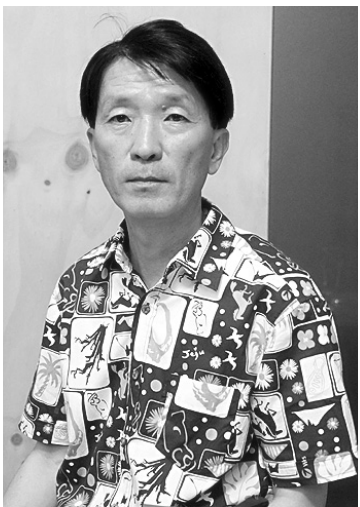
이날 구좌, 조천, 중산간 마을 등 4곳의 ‘제주발담’을 둘러본 이들은 새로운 농업유산 스타일의 ‘제주발담’에 신선함과 호감

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제주 발담과 농업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며 발담과 제주의 삶, 방풍수, 농경문화 등을 유기적으로 엮어 스토리텔링화할 경우 ‘제주발담’의 농업유산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속가능한 보전·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농민, NGO와 협력·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지실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농업유산인 제주발담을 ‘새롭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이들의 조언을 수렴해 향후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인터뷰 강정현 제주개발공사 제주지역맥주사업추진TF팀 단장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목적”

“최근 국내 수입맥주와 프리미엄 맥주에 대한 선호도로 맥주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정현(사진) 제주개발공사 제주지역맥주사업추진TF팀 단장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제주산 화산암반수, 청정제주보리와 같이 제주의 특색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제주맥주는 프리미엄맥주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강 단장은 이어 “제주 맥주용역 결과 연간 100kL 규모의 소규모 맥주 형태로 운영될 경우 사업개시 3년차에 이익이 발생하는 등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지역맥주 사업을 통해 향토자원인 화산암반수와 제주산 백호보리를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은 물론 새로운 관광먹거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단장은 아울러 “일각에서는 맥주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사는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보다는 제주산 보리 등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고용창출, 관광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제주맥주사업이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주요 산림소득 공모사업

제주시는 2014 주요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9월 1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총사업비 449억원이 투입될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신청조건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총사업비 10억원의 70%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생산자단체와 전문임업인이 대상이며 산지제배는 5억원, 시설제배는 10억원 이내에서 60%까지 지원한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전문임업인에게 5억원 범위 내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제주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사업 전망, 재정확보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문의 728-3581. 문미숙기자

제주교통방송 설립 속도 붙나

도로교통공단, 전국 네트워크 구축 위해 서둘러 추진키로

9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주교통방송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통방송은 ITS센터(첨단교통센터), 경찰과 연계해 각종 교통사고와 공사, 기상 등에 따라 도로 소통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여기에 관광객들을 위해 관광지 등 안내 전역에 걸친 관광정보, 각종 재난에 대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난 2004년 도로교통공단이 제주교통방송 건립을 위해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맞은편에 5000여㎡의 부지를 매입하고 신규 FM

주파수 확보를 위해 2009년에는 분부 차원에서 주파수 최종 테스트까지 마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주파수 확보’라는 난관에 부딪혀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특히 공단이 제주교통방송 설립을 위해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규 전파 신청을 했지만 모두 FM 주파수 고갈과 난청 등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4번째 신청을 위해 28일부터 육지 전파와 충돌하지 않는 도내 새로운 전파 측정에 나서고 있다. 또 경북교통방송 설립허가가 마무리

됨에 따라 TBN교통방송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제주 교통방송 설립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전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전파를 찾게 되면 제주교통방송국 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북지역의 교통방송국 설립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제주지역에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등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전파 확보만 된다면 충북보다 제주지역에 먼저 교통방송이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국제자유도시로 향하는 큰 걸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인 미래비전이다

특별자치도해산 무신거리

출판기념회

2013년 8월

김대환

일시 2013년 8월 30일 (금) 오후 5시
장소 라마다제주호텔 2층(제주시 탐동)

*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래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얼마나 가슴 조이고 시달렸습니까?
그나마 뒤늦은 단비가 내려 목 타는 농심을 달래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어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7년,
그리고 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도민과 함께
평범한 도민의 한사람으로 살아온 지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길거리에서, 어느 농장에서, 일터에서 만난 도민들이
“특별자치도해산무신거리”하는 질문에 그냥 넘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편의 책으로 도민의 물음에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꼭 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제주도정 소식

2013 하반기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실시

○ 참여기업 및 채용 인원 : 124개 기업체서 330여명 채용
○ 채용기간 : 9월 1일~30일
○ 주요 모집 분야 - SW개발자, 생산관리, 기술영업직, 연구직, 사무직 등 다양
○ 정기공채 가이드북 제공 : 8월 28일부터 고용센터, 각 대학 취업전략본부, 제주 YWCA, 도 및 행정시 민원실을 통해 구직자에게 배부하며, 도 및 대학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PDF 화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 문의 : 경제정책과(전화 : 710-2541)

시외버스에 ‘노선번호’ 부여

○ 시행시기 : 9월 1일부터 - 올해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4. 1월부터 시외버스 노선번호를 최종 확정할 계획
○ 시외버스 노선별 부여번호
○ 동·서 일주도로 노선 : 700번 ○ 성산부도 노선 : 710번 ○ 번영로(표선)노선 : 720번 ○ 남조로 노선 : 730번 ○ 1100도로 노선 : 740번 ○ 평화로(대정) 노선 : 750번 ○ 영어교육도시 노선 : 755번 ○ 516-중문고속화 노선 : 780번 ○ 읍면순환노선(19개) : 900번 ○ 리무진 버스 : 600번 ○ 문의 : 교통항공과(710-2431)

한라산국립공원 9월부터 입산 및 하산 시간 조정

○ 적용시기 : 9월 1일~10월 31일까지 ○ 코스별 조정된 입산 시간 -어리목코스(매표소)·영실코스(통제소) : 오후 2시 -윗세오름통제소 : 오후 1시 30분 -성관악코스(진달래밭) : 오후 12시 30분 -관음사코스(삼각봉 대피소) : 오후 12시 30분 -돈내코코스(안내소) : 오전 10시 30분 -어승생악코스(매표소) : 오후 5시 ○ 탐방로별 하산 시간 -윗세오름 : 오후 4시 -동릉정상 : 오후 2시 -남벽 분기점 : 오후 2시30분○문의 : 한라산국립공원(전화 : 713-99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 (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